

본회, 적육비방 신문광고에 대한 해명 및 사과 요구

본회는 (사)대한양계협회와 육계계열화협의회에서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닭고기 홍보관련 광고가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담고 있어 전국의 양돈농가를 대표하여 이들 양 단체에 강력 항의하고 조속한 기한내에 해명 및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본회는 5월 17일 양단체에 보낸 항의 공문에서 “귀회의 광고내용 ‘육류 100g당 주요성분 비교표’ 중 콜레스테롤 관련부분은 미농무성 자료가 아닌데도 마치 미농무성 자료인양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있으며, 닭고기 100g당 0~90mg의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다는 내용 또한 확인 결과 수치를 낮춘 허위사실로 판명되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광고에 인용한 콜레스테롤 함량 관련 자료는 38년전인 1957년 통계로 그동안 지방질이 적고 살코기 함량이 많은 방향으로 돼지 육종과 개량이 이루어져 온 사실을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있고, 영양성분 분석자료도 돼지고기와 쇠고기는 특정 부위를, 닭고기는 전체 고기를 분석한 것으로 객관성을 결여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고 내용중 미국과 이스라엘, 일본 등 선진 각국 국민들의 닭고기 소비량이 한국인보다 무려 7배나 된다고 하면서 유독 닭고기만이 쇠고기나 돼지고기보다 많이 소비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케 하고 있으나, 본회 조사결과'93년 미국의 닭고기 소비량은 21.7kg으로 한국의 소비량 5.5kg보다 3.9배, 이스라엘은 19.6kg으로 3.6배, 일본은 9.1kg으로 1.7배에 불과해 모두 허위사실로 판명되고 있다고 조목조목 광고내용을 반박했다.

특히 “백색육이 적색육보다 좋은 육류이고 적색육을 구워 먹으면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형성된다”는 연구 내용을 과장 홍보함으로써,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돼지고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협

회

소

식

심어주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양돈농가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이때, 국내 축산단체가 힘을 합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이같이 사실과 다른 허위, 과장광고로 축산발전을 해치고 양돈농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본회는 이에 대한 해명과 응분의 사과, 정정을 요구했다.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본회는 지난 5월 17일 농림수산부의 축산법시행규칙 중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의견서에 따르면, 시행규칙 제28조(축산업의 등록허가의 규모절차 등)가 모법 본래의 취지인 「축산업은 농민의 고유업종으로 도시 상업 자본의 과다한 침투를 방지하여 농민을 보호함」에 있으므로 28조 4항 1호는 존속시키고, 대기업은 종돈업 또는 유통가공업 등에 참여하여 양돈농가가 개방화 시대에 중소 규모의 전업농으로 육성발전 될 수 있도록 현행 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28조 ⑤항 3호의 개정안에 대하여 종축등록기관에 등록된 종돈의 사육 두수에 대하여는 현행 아무 규제가 없으며, 혈통보존이 안된(잡종)모돈을 종축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무제한 사육하도록 하는 발상은 대의 명분도 없으며, 양돈농가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축산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조항으로서 반드시 삭제·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양돈산업 경쟁상대국 실태조사」 보고 및 간담회 개최

본회는 2년에 걸쳐 용역으로 맡겨 실시한 「양돈 경쟁상대국의 양돈산업 실태조사 연구 사업」에 대한 보고회와 간담회를 이번 6월동안 각 도

별로 순회하면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사업은 개방화로 인한 한국 축산의 장래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고 보고회는 건대 정찬길교수의 연구발표와 질의응답식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된다.

간담회 시간표와 도별 순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도별 순회 일정〉

일 자	도 별	장 소
6. 8(목)	경기도	축협중앙회 2층 강의실
6. 10(토)	충 남	온양그랜드 관광호텔
6. 13(화)	강 원	춘천 삼천리 그린파크
6. 14(수)	충 북	장소 미정
6. 15(목)	전 남	축협 도지회 회의실
6. 16(금)	전 북	축협 도지회 회의실
6. 20(화)	경 남	부산 경남 양돈조합
6. 21(수)	경 북	축협 도지회 회의실
6. 23(금)	제 주	제주 양돈조합

〈간담회 시간표〉

구 분	시 간	소요시간	비 고
취지발표	10:00~10:30	30분	노영한 전무
연구발표	10:30~12:30	120분	건대 정찬길 교수
중 식	12:30~13:30	60분	
간 담 회	13:30~15:30	120분	질의응답식

본회, 수입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소비자·농민연대 발족식 참여



본회는 지난 5월 19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비자 농민연대 발족식에 참여하여 수입식품 '선통관 후검사' 및 '유통기한 철폐' 저지를 위한 불매·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35개 단체로 이루어진 소비자·농민연대는 발족선언문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통상 압력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하며, 수입식품의 「선검사 후통관」의 강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 등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지키는 제도장치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결의하고 소비자 및 농민이 함께하는 힘찬 연대운동의 개막을 선언했다.

명동성당에서의 발족식 후에 탑골공원까지 거리평화행진을 하였고 탑골공원에서 수입식품 ‘선통관 후검사 및 유통기한 폐지’ 저지를 위한 불매·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유해물질 방지 계도용 스티커, 포스터 제작·배부

본회는 지난 5월 19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돼지고기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유해물질 잔류방지를 위한 양돈농가 계도용 스티커와 포스터를 제작, 각 지부를 통해 전국의 양돈농가들에게 배부했다.

본회 홍보부에서는 축산물이 수입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수입 돼지고기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티커와 포스터를 제작·배부하게 됐다.

스티커는 3종으로 각 1만매씩 3만매를 제작했고 포스터는 1종으로 1만매를 제작하였는데 그 내용은 돼지사진과 함께 “휴약기간을 준수하여 안전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것이 돼지고기 수

입을 막고 양돈인이 사는 길입니다”라는 문구를 실고 있다.

본 스티커와 포스터는 양돈장내 돈사 및 사무실 출입구 등 양돈농가가 자주 볼 수 있는 장소에만 부착하고 유해물질이 없는 안전한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기를 당부했다.

한편 본회는 금년을 유해물질 잔류방지 원년으로 정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

본회, SEW 세미나 개최

세계양돈산업의 흐름은 돼지의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면서 돼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양돈사양기술의 하나로 격리조기 이유(SEW : Segregated Early Weaning) 시스템이 개발되어 세계 각국에 도입·보급되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이 SEW 시스템의 실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본회는 「격리조기이유(SEW) 양돈의 생산성과 실시요령」이란 주제로 오는 7월 6일(목) 축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의 SEW전문가가 내한하여 격리조기이유의 양돈 전반적인 사항과 SEW 양돈시설에 대하여, 한국측에서 SEW 양돈의 효과와 실시방안에 대하여 각각 주제 발표할 계획이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